

The background is a solid black color. Scattered throughout are numerous bubbles of various sizes. Some bubbles are large and prominent, while others are small and subtle. The bubbles have a white outline and a slight gradient, giving them a three-dimensional appearance. They are distributed across the top, bottom, and sides of the frame, with a higher concentration on the right side.

# 철학개론 신념에 대하여

임상옥

14주차

## 4세기의 정치 · 사회적 상황

- 4세기의 사회정치적 상황은 그리스철학에 대한 '로마철학'의 절대적 우위를 확정하는 결과를 가져왔고, 이후 서양 정신사의 흐름을 주도해갔다
- 서양 정신사가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것에 자리한 '로마철학적' 사고 패턴은 매우 자연스런 방법으로 우리 자신의 사고 패턴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
- 4세기에 있었던 사건 중 가장 큰 것은 로마의 국교에 관련된 것이었고, 여기엔 서로 다른 관점의 두 가지 해석이 있다



- 로마제국의 국교가 된 기독교

- 밀라노 칙령(313년)에 이은 로마제국의 국교 선포(392년)

- 정사(正史)와 야사(野史)

- ; 기독교의 경우: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회심 vs. ? (정치적 수완)

- ; 불교의 경우: 아쇼카 대왕의 양심 vs. 정치적 수완

- 팍스 로마나(Pax Romana)

- ; 평화를 가져온 주체로서의 자긍심을 나타내는 표현

- ; 군사력과 외교를 통한 통치 방식

- ; 자치 인정은 곧 문화의 총화인 상대방의 신을 인정한다는 의미

- ; 로마 사회에 확산되기 시작한 부패 양상

- ; 제국 군대의 정체성 변화와 이를 바라보는 콘스탄티누스의 해법



# 과학적 신념과 신비적 신념

- 환원주의: 물리학적 우주관을 전제로 한 서구의 대표적인 진리 탐구 방식
  - 환원주의의 정의: '아무리 복잡한 복합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분해하여 마지막 단일체까지 환원해 간다면 그 복합체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.'
  - 환원주의의 전제: '부분의 총합은 전체이다.' 물리학적 우주관을 배경에 둔 명제
  - 환원주의에 대한 반박: '전체는 부분의 총합 이상이다.' 생물학적 우주관을 배경으로 도출되는 명제



- 신념을 대하는 태도

- 과학적(혹은, 상식적) 신념

- ; 비록 밀레토스 학파의 전통을 내용적으로 계승한 분과가 바로 근대 과학일지라도, 전자의 철학 방법론과 달리 근대 과학 분야는 (오랜 '로마철학적' 전통에 따라) 물리학적 우주관을 토대로 한 환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

- ; 요컨대 환원주의의 핵심은 바로 가장 작은 불변의 입자로부터 모든 물질적 복합체가 시작된다는 가설에 있는데, 이 사실이 현대 과학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

- ; 이런 이유에서, 과학은 '정답'이나 불변의 사실을 주장하기보다는 가능성과 확률을 이야기 한다

- ; 다시 말해, 과학은 '아마 그럴 거야'라는 생각, 곧 신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



- 신비적 신념

- ; 모든 종류의 '피카츄'를 말하는 주장들은 '신비적 신념'이라 부를 수 있다
- ; 이 역시 신념인 이유는, 이들 각각의 주장들엔 모두 자신만의 배타적 방법론이 적용됨으로써 불변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
- ; 만약 이러한 주장들 간에 차이가 있다면, 이는 오직 그것을 신념하는 사람들의 많고 적음, 즉 양적 차이가 있을 뿐이다



## - 신념과 신념

; 요컨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팩트와 팩트, 혹은 팩트와 신념간의 차이가 아니라, 실은 신념과 신념 간의 차이에 불과하다

; 이때 양자에서 주장하는 바가 모두 신념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서로 반목하거나 적대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

; 오히려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더 나은 형태의 행복한 공동체가 가능할 수도 있다

1. 양자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주장이 진리임을 확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
2. 누군가를 배척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전한 행복일 수 없듯, 다른 한편, 마치 공장의 생산품처럼 획일적인 삶의 방식 역시 온전히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



- ; 이로부터 우리 모두는, 양자의 경험을 충분히 한 자기 영역의 '존장'들로서, 서로의 존재와 저마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
- ; 다만, 정보가 충분치 못할 경우, 이를 테면, '피카츄를 본 경험' 단 한 가지만 있는 경우나, '쭈쭈바를 먹어본 경험' 단 한 가지만을 가진 경우, 정보의 불충분함으로 인해 오직 그것만을 맹신하게 되는 확신범이 될 수 있으므로, 이에 대한 각별한 검토와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
- ; 만약 다른 신념들을 편견없이 바라볼 수 있다면,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의 신념과 함께 온전히 행복할 수 있다
- ; '도 티는' 작업이란 곧 '균형 감각을 갖춘 사고 패턴의 완성'이라는 의미를 갖는다





# 교재 및 참고문헌

## • 교재

- 철학자들의 일대기 관련: 빌헬름 바이세델, 『철학의 뒤안길』, 서광사, 1991.
- 철학자들의 사상 관련: 버트런드 러셀, 『러셀 서양철학사』, 을유문화사, 2009.

## • 참고문헌

- 김보일, 『14살 철학소년』, 북멘토, 2009.
- 조성오, 『철학 에세이』, 동녘, 2009.
- 리하르트 프레히트, 『살아있는 동안 꼭 생각해야 할 34가지 질문』, 21세기북스, 2008.
- 요슈타인 가아더, 『소피의 세계』, 현암사, 2009.

